

명말청초 顧貞立의 여성의식과 교유

김선*

<目 次>

1. 머리말
2. 여성의 삶에 대한 자각
3. 여성의 詞才과 글쓰기
4. 다른 여성과의 교유
5. 맺음말

1. 머리말

이청조와 주숙진을 비롯한 송원대의 여성 사인은 개별적으로 출현하였지만 명대 만력 이후 여성작가들이 군체를 이루어 대거 출현했다. 沈宜修·葉小鸞·葉小紈을 중심으로 한 吳江 沈氏가족의 사가 출현하였고 사상적으로 心學이 흥기되어 자유로운 풍조가 詞壇에 영향을 미쳐 黃媛介·劉淑·王微·柳如是·李因·朱中楣·徐元端 등의 여성 사인이 대량으로 출현하여 《全明詞》에는 376명의 여성 사인의 2240여 수가 수록되었다. 명말청초에 생존했던 顧貞立(1623-1699)의 본명은 문완(文婉)이고 자(字)는 벽분(碧汾)이며 자호는 피진인(避秦人)이며 강소(江蘇) 무석

* 고려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강사

인(無錫人)이고 고정립(顧貞觀)의 누이이다. 고정립은 장녀로 문학적인 재능과 호방한 기개를 지녔다. 그녀는 17살 때에 같은 마을에 사는 侯晉에게 시집을 갔는데 侯晉이 湖州에 부임하다 객사하여 고정립은 외지에서 사별의 아픔을 겪었다. 고정립의 아들 侯麟勛은 어려서 영민하여 신동으로 불렸고 시와 고문에 능해 약관에 이름은 날렸다. 고정립은 詩詞에 능해 《棲香閣詞》 2권이 있는데 시대에 대한 감개와 혼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다.¹⁾ 顧貞立의 시는 《全明詞》에 169수가 수록되어 있다.²⁾

고정립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고정립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고 중국학자 鄧紅梅의 〈孤傲勁爽的顧貞立詞〉에서 고정립의 시는 운유돈후의 전통을 타파하였고 호방한 詞氣로 여성의 운명에 대해 깨어있는 시각을 보였다고 여기고 고정립의 사를 지분기 거부, 외부 세계에 대한 분명한 각성, 혁신적인 詞境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³⁾ 趙雪沛는 〈孤憤與蒼涼交織的顧貞立詞〉에서 고정립은 세속과 어울리지 않는 자만과 豪情한 기개가 있고 不遇한 삶과 도도한 성격은 우울한 심리를 형성하였고 여성으로서 격분하는 방식으로 신세의 한을 서술한 선각자로 평가하였다⁴⁾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삶에 대한 자각, 여성의 재주와 글쓰기, 다른 여성과의 교류에 초점을 맞춰 명말청초 고정립의 詞 세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고정립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어떠한 자각을 하였으며 ‘無才是德’라는 사고가 만연된 전통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재주와 글쓰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동시대 다른 여성과의 문학적인 교류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1) 李娜, 《清初詞人顧貞觀研究》 蘇州大學碩士論文, 2002. p. 7-8.

2) 顧貞立의 시는 《全明詞》第五冊(張璋總纂·饒宗頤初纂, 北京: 中華書局, 2004年)에 수록된 작품 수는 169수인데 《歸國遙》(分飛久)와 《滿江紅》(摘碎花魂)이 두 번씩 출현하여 총 작품수가 167수이다. 한편 《全明詞》에 수록된 顧氏는 顧貞立과 동일 인물로 판명되었고 사 3수를 수록하고 있다. 그 중 〈浣溪沙〉(百轉)는 顧貞立의 작품 〈浣溪沙〉(百轉)와 동일한 작품이고 여기에 〈南鄉子〉(雨歇)와 〈歸國遙〉(爲問) 2수가 더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顧貞立의 작품 수는 모두 169수이다.

3) 鄧紅梅, 〈孤傲勁爽的顧貞立詞〉 山東師大學報 第3期, 1996, p. 80.

4) 趙雪沛, 〈孤憤與蒼涼交織的顧貞立詞〉 北京大學學報 第43卷 第3期, 2006, p. 79.

2. 여성의 삶에 대한 자각

중국 여성의 전통적 생활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편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남성에게 의탁하고 복종해야 했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에게 늘 유순하게 순종해야 했으며 평생 부속품으로 살며 남편이 죽더라도 수절해야 했다. 둘째, 여성은 바깥출입을 할 수 없었고 늘 집안에 갇혀 가사를 돌보고 남편과 시부모를 섬겨야 했다. 셋째, 여성은 자식을 낳아 길러 대를 잇는 도구로 여겨졌다. 넷째, 여성들은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아갈 권리를 빼앗겨 안목이 낮고 시야가 좁아졌으며 자신들의 모든 욕망을 억압당한 채 빠르게 늙어갔다.⁵⁾ 명말청초 고정립은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각을 사에 표현하였다.

사 패	서 문	여성의 삶에 대한 자각
滿江紅(僕本)	楚黃署中聞警	算綺墓、何必讓男兒， 天應忌。
沁園春(掠鬢)		掠鬢梳鬢，弓鞋窄袖，不 慣從來。
浪淘沙(新粉)		休傍牙籤癩掩映，不是 儒冠。
浪淘沙(何必)	和纖月，倒用原韻。	何必羨儒冠，花滿闌干。 掃眉才子是鳴鸞。
滿江紅(萬斛)		算詞壇、端合讓裙釵， 低頭矣。

고정립은 〈沁園春〉(掠鬢)에서 전통 여성에게 강요했던 머리 모양과 전족 그리고 복식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였다.

掠鬢梳鬢，弓鞋窄袖，不慣從來。

5) 루링 편저 · 이은미 번역, 《중국여성 : 전족 한 쌍에 눈물 두동이》 서울 : 시그마북스, 2008, pp. 72-76, pp. 114-119.

但經營理科，茶鑪茗碗，親供灑掃，職分當該。
還謝天公深有意，便生就、粗疏邱壑才。
將衰矣，斜陽日影，短景頻催。

閒身不妨多病，且憑他位置，廢苑荒臺。
伴香濃琴靜，百城南面，青編滿架，湘軸成堆。
一縷茶煙和芋煮，只數點、秋花手自栽。
都休也，蠅頭蝸角，於我何哉。⁶⁾

귀밑머리와 쪽진 머리를 빗질하고,
전족 신발과 좁은 소매는 전부터 익숙지 않았지.
단지 집안 살림 할 때 차 그릇을 몸소 공손히 따르고 소개하는 직분을 맡았
지.
또한 하늘이 깊은 뜻 있어 심산유곡에서 촌스러운 재주를 타고나게 했구나.
석양의 해 그림자 장차 쇠잔해지는데 얼마 남지 않은 해를 자주 재촉해보네.

한가로운 몸은 병 많은 것 개의치 않고 저 곳을 의지하니 황폐한 정원과 누대
뿐이네.
진한 향기와 고요한 거문고 벗하며 수많은 책에 둘러싸여
서가엔 책이 가득하고, 두루마리가 쌓여있네.
실오라기 같은 차 연기 속에 토란이 삶아지고 단지 손수 심은 가을꽃을 세어
보네.
모두 관두자. 내게 보잘 것 없는 명리가 무슨 소용 있나?

고정립은 전통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해왔던 머리 모양과 신발 의복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쪽진 머리⁷⁾는 여성스러움을 강요했지만 그녀는 다듬기 귀찮아했고 전족⁸⁾은 여성의 발을 억압하고 기형화하여 고통을 초래했다. 또한 좁은

6) 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北京：中華書局，2004，p. 2816.
7)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당·송·원·명·청에 이르기 까지 여성의 머리 모양과 화장은 갈수록 중시되었는데 땅아 올린 머리는 중국 여성 특유의 머리 모양이었으며 전족과 함께 여성을 옥죄는 수단이 되었다. 여성들은 머리모양이나 화장을 중시하여 거울 앞에서 곱게 화장하고 갖가지 형태로 머리를 치장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반용계(盤龍髻), 원앙계(鴛鴦髻), 서야계(栖鴉髻), 여의계(如意髻)등이 그러한 머리 모양이다. 여기에 금비녀나 옥비녀를 꽂음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신의 높은 신분을 과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성들의 사랑을 얻고자 했다. 《중국여성: 전족 한 쌍에 눈물 두동이》 루링 편저·이은미 번역, 서울: 시그마북스, 2008, p. 87.
8) 전족이 전성기를 맞은 것은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이다. 시조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기 전에,

소매는 호탕한 고정립의 기질에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전족은 신체 일부의 정상적 발육을 억제하는 행위이다. 전족을 하려면 어려서부터 발을 꼭꼭 싸맸고, 그 결과 천천히 족부 뼈가 구부러지며 기형이 되었다. 전족을 한 후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전족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다. 전족을 숭상한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여성을 규방에 가두기가 용이했다. 여성들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삼종사덕’의 예교를 따르게 하고 결국 남성들의 욕망에 따라 정조를 독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둘째, 전족을 함으로써 여성의 몸매와 성의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여 대를 잇는 출산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셋째, 봉건시대 많은 문인 사대부들은 여성을 노리갯감으로 보고 발이 작을수록 아름답다는 변태적 심미관을 추구했다. 넷째, 중국의 여성은 오랫동안 남존여비의 사상과 까다로운 예교 하에서 살았기에 자신의 독립적 인격을 자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남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전족을 하며 작은 발을 자랑스럽게 여겼다.⁹⁾ 고정립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해 왔던 외모와 복식에 대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이 선천적으로 문학적인 재능을 타고나 글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고정립은 신체적인 질병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차를 마시면서 서가에 가득 쌓인 책을 보며 한가로운 삶을 즐겼다.

전족이 이미 상류 사회 여자들의 신분과 계급을 상징할 만큼 널리 퍼져 있었다.....명 시대에는 전족이 더욱 작아졌다. 게다가 모양도 요사스럽게 변해서 도저히 사람의 발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만주족은 청 왕조를 세운 뒤 처음에는 한족의 전족을 금했다. 강희(康熙) 3년(1644년)에 칙령을 내려, 이후 새로 태어나는 여자아이는 전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부모나 가장을 처벌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전족에 병적으로 집착하여, 강제로 금지시키기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때문에 강희 7년에 할 수 없이 전족 금지령을 취소했다. 도광(道光) 황제 18년에 다시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금지령이 내려진 후에도 많은 여자들이 전족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발을 동어매는 고통을 자진해서 감수했다. 명나라 대는 전족의 길이가 보통 3촌이었다. 그러나 청 시대에는 기를 쓰고 발을 더 동여매서 2촌 8푼인 9센티미터에 도전했다. 전족은 가능한 짧고, 작고, 마르고, 끝이 뾰족하고, 곡선을 이루고, 부드럽고 그리고 향내가 나는 일곱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정통 전족으로 간주되었다. 《중국여성 잔혹풍속사 : 작은 발 한쪽에 눈물 한 동이》 이영자 지음, 서울: 에디터, 2003, p. 115-116.

9) 루링 편저 · 이은미 번역, 《중국여성: 전족 한 쌍에 눈물 두동이》 서울: 시그마북스, 2008, pp. 72-76.

고독한 규방에서 유일한 위로는 독서와 글쓰기였다. 책 속의 사건과 인물을 접하며 견문을 넓히고 간접적으로 다른 이의 삶을 체험할 수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남성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귀공명을 꿈꾸는 것과 달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열악하고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된 여성은 글을 통해 출세나 명리를 추구하지 않고 독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가꾸며 규방의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浪淘沙〉(何必·和織月, 倒用原韻)에서는 여성이 선비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何必羨儒冠.
花滿闌干, 掃眉才子是鳴鸞.
得近班家明月句, 願作齊紈.

痛飲不須酸.
簾外輕寒, 海棠枝上露團團.
驚醒今宵香夢影, 刻向琅玕.¹⁰⁾

선비를 부러워 할 필요가 있는가!
꽃이 난간에 가득 피었는데 재능 가진 여자는 우는 난새 같네.
반씨의 “명월” 시구를 가까이하여 둥근 부채 만들려 하네.

통쾌하게 마시고 서글퍼할 필요 없네.
주렴 밖에 약간 싸늘한데 해당화 가지엔 둥그런 이슬이 맺혔네.
놀라 깨어나서 오늘밤 아름다운 꿈 그림자를 난간에 새기네.

고정립은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 선비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 강조하였다. 문학적인 재능을 지닌 여성을 우는 난새에 비유하였고 반첩여의 시구를 인용하여 버림 받은 여인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고정립은 호쾌한 기세로 맘껏 술을 마시고 마음의 슬픔을 털어 버리고 아름다운 꿈을 통해 현실의 고독을 잊고자 하였다. 〈浪淘沙〉(新粉)에서 “서책을 곁에 자주 가리지 말게. 유생이 아니다 하여”¹¹⁾라고 강조하여 여성들한테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이 아니라고 해서 책

10) 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 北京: 中華書局, 2004, p. 2836.

을 읽는 것을 관두지 말라고 당부하며 여성이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독서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滿江紅〉(萬斛·贈薛夫人)에서는 여성 사인의 사를 높이 평가하였다.

萬斛愁思，誰織就、漫天風雨。
難禁架、將歸送別，遣懷無計。
望去畫樓煙樹遠，飛來險韻驚人句。
算詞檀、端合讓裙釵，低頭矣。

人宛在，香窩裏，飛絮詠，休輕棄。
似蘭吹風送，名花解語。
莫把韶華和恨鎖，空花幻影尤難寄。
看他年、麗句滿香奩，傳千里。¹²⁾

수많은 수심을 누가 비바람 가득한 날에 위어놓았나?
돌아가고 송별하는 것을 건디기 어려우니 회포 풀길 없네.
아름다운 누각에 올라 아득히 안개 낀 나무를 바라보니
사람을 놀라게 하는 험운 시구가 날아 왔네.
사단은 응당 여자에게 양보하고 고개를 숙여야하네.

사람이 완전히 향기 나는 곳에 있으니
휘날리는 버들 솜 읊는 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게.
난초에 바람 불어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는 미인을 전송하는 듯.
아름다운 세월을 한과 함께 가두지 말게. 환상 속의 꽃 허상은 더욱 부치기
어렵네.
다른 해에 경대에 가득한 아름다운 시구를 천 리 밖에 보내리.

명말 사단에는 인품과 사품이 매우 높은 남성 사인들이 대거 출현하였다. 陳子龍은 명대 창작 성취가 가장 높고 청에 대항하다가 순국한 민족의 영웅이지만 만당과 북송의 사를 추존하여 완약하고 아름다운 사풍을 추구하였다. 이외에도 나라

11) 〈休傍牙籤頻掩映，不是儒冠〉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北京：中華書局，2004，p. 2816.
12) 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北京：中華書局，2004，p. 2836.

를 위해 몸을 바친 열사 중에 사 창작에 뛰어난 사인으로는 孫承宗·夏完淳·張煌言·吳易·湯傳楹 등이 있다.¹³⁾ 청초에 창작활동을 했던 사인으로는 屈大均·王夫之·吳偉業·曹貞吉이 사단을 부흥시켰다. 청초의 가장 대표적인 사인은 양선과의 종주인 陳維崧으로 소식과 신기질을 추존하여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시켰고 사회 현실을 반영하였다. 納蘭性德은 남당의 이옥의 풍격을 본받아 소령에 능했고 완약하고 애절한 사를 지었고 절친한 친구인 顧貞觀은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사풍을 이루었다. 고정립은 자신에게 부쳐온 여성의 詞가 매우 뛰어나 남성 작가들이 마땅히 여성작가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단의 주도권을 양보해야 된다고 강조하였고 〈滿江紅·楚黃署中間警〉(僕本)에서 여성도 자신이 처한 사회와 국가 현실에 대해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僕本恨人，那禁得、悲哉秋氣。
恰又是、將歸送別，登山臨水。
一派角聲煙靄外，數行雁字波光裏。
試憑高、覓取舊粧樓，誰同倚。

鄉夢遠，書迢遞，人半載辭家矣。
歎吳頭楚尾，愴然孤寄。
江上空憐商女曲，閨中漫灑神州淚。
算縞綦、何必讓男兒，天應忌。¹⁴⁾

난 원래 실의에 젖은 사람이니, 애달픈 가을의 쓸쓸함을 어찌 견디리.
마침 그 때가 되니, 장차 돌아가려 하는 이를 송별하려 높은 산에 올라 강을 내려다보네.
운동 빨피리 소리 운무 밖에서 들려오고, 여러 줄로 나는 기러기 물결 속에 비치네.
높은 곳에 의지하여 옛 누각을 찾아보는데 누구와 함께 기대나.

고향 그리는 꿈은 아득하고 서신은 멀기만 한데, 집 떠난 지 반년이 되었네.
예장 일대에서 갑자기 홀로 기거하는 것을 탄식하네.
강가에서 공연히 가희의 곡조를 애달파하고 규방에서 부질없이 중원 때문에

13) 張仲謀, 《明詞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p. 287.

14) 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 北京: 中華書局, 2004, p. 2815.

눈물 뿌리네.
 여자라고 해서 어찌 반드시 남자에게 양보해야만 하는가? 하늘이 꺼린다고
 해서.

명나라가 전란에 휩싸이자 고향을 애타게 그리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상편에서는 소슬한 가을에 높은 곳에 올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나라를 생각하며 가족과의 이별로 고통스러운 심정을 그리고 있다. 하편에서는 예장에서 남편 없이 홀로 독수공방하는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여기고 닫힌 공간인 규방에서 만주족에게 중원을 빼앗긴 아픔을 느끼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국가의 위기를 직면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고정립은 〈虞美人〉(暗傷)에서 “남몰래 망국을 슬퍼하고 눈물 흘리네. 이 밤 어떻게 잠드나? 달 밝은데 어디서 누구를 애 끊어지게 하나. 여전히 궁궐에서 가무 즐기는 연회가 가장 안타깝네”¹⁵⁾라고 망국의 슬픔을 토로하였다. 고정립은 망국의 고통과 충격으로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며 연회를 베풀어 가무를 즐기는 무책임한 위정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3. 여성의 詞才와 글쓰기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다’라는 격언은 명대에 와서 나타난다. 여기에 서 소위 재주란 재주의 재(才)가 아니며 단지 좁은 의미의, 책을 읽고 글자를 쓸 줄 아는 것을 말했다.¹⁶⁾ 명 말기에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라는 사고가 싹튼 원인에 대해 중국학자 陳東原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서상기》가 명나라 때도 유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앵앵이 정숙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시 짓는 습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만약 시를 짓지 못했다면 결코 장생과 시를 주고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월서상하〉라는 시가 정조를 잃어버리게

15) 〈暗傷亡國偷羈展. 此夜如何睡. 月明何處斷人腸. 最是依然歌舞宴昭陽.〉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 北京: 中華書局, 2004, p. 2817.

16) 陳東原지음·송정화, 최수경 옮김,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서울: 박이정, 2005, p. 30.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재주 없는 것이 덕이라는 말이 생긴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기녀들 중에 시로 유명한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를 지켜본 세상 사람들은 재주 있는 것이 불행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셋째, 당시 사람들은 명말 심의수의 딸인 葉小鸞이 재주가 뛰어나 10살 때부터 시를 지었으나 17살에 죽은 것을 보면서 재주가 있는 여성은 요절하기 마련이라고 믿었다.¹⁷⁾ 이러한 편견들로 인해 명대에는 여성이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라는 사고가 만연하였다. 이에 반해 고정립은 사에서 여성의 문학적인 재능과 글쓰기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사 패	서 문	여성의 詞才와 글쓰기
望江南(東亭)		吟就護蘭詩
望江南(東亭)		鬥韻與飛箋
滿江紅(此夜)	中秋寄梁汾弟	半生詞賦同悽愴
念奴嬌(香消)	甲辰送麟兒就試,有北堂人未老,青鬢約金冠之句,回首十年,依舊頭顱如許,可勝三歎.	綺思紛來,回文自解,總是前生業.
沁園春(嘯傲)		與青谿小妹,飛箋索賦,慵闋病嫂,險韻同裁.
滿江紅(摘碎)		握管欲吟紅雨曲,啼痕先把青衫漬.
青衫紅(倒傾)	題斷腸草	瓊牋寫淚,銀鑪煮字,送盡華年.
南鄉子(黯然)	壬子仲冬,同表妹張夫人小舟出西關,溼雲連天,欲雨不雨,淒涼景況,黯然銷魂.憶從前禮懺華藏,曾縱纜於此,風和日暖,迴異期時,彈指韶光抑可速耶.因記以二詞.其二和張均華「藏多櫻桃花」,故落句及之.	羞說打窗詞場.總是愁香怨粉章.
南鄉子(花影)		總有新詞莫浪傳
南鄉子(高臥)		詩滿壽箋酒滿甌
浪淘沙(何必)		好句飛來險韻,筆研陶情.
浪淘沙(悔不)		償盡紅氈冰與雪,不廢推敲

17) 陳東原 지음 · 송정화, 최수경 옮김,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서울: 박이정, 2005, pp. 287-288, pp. 294-296.

滿庭芳(除夕)	乙丑元旦立春	雪堂分韻, 黛筆拂雲牋.
如夢令(懶貼)		織就回文錦字.
賀新郎(長嘯)	中秋見有以月爲韻者, 謾賦.	譜江山、誰堪賦就, 美人花月
桃絲(清波)	壬子九月二十一夜, 夢兩仙子, 煙鬢雲鬢, 霧縠霞綃, 芬芳襲人, 珊珊而來, 光彩耀室, 遺予草二株: 一枝條碧紅絲, 非花非葉, 纖纖可愛, 不與垂柳似, 云是「桃絲」; 一枝翠葉淺深, 如梧如菊, 如桂如槲, 方圓斜整, 種種可異, 云是「翠凌波」, 因其名, 遂各製一詞記之.	四十九年償慧業, 歸遲.
浣溪沙(風雨)		空拈斑管寫長歎.
浣溪沙(獨坐)		閒題恨字滿花箋

고정립은 〈沁園春〉(嘯傲)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회문시를 창작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嘯傲生成, 薄游身世, 慘愴情懷.
 也曾經料理, 繡牀花樣, 回文機杼, 空裏樓臺.
 怕向針神稱弟子, 但通國、閨娃受教來.
 今難再, 看殘絲剩線, 意懶心灰.

清神猶餘眼耳, 便霜鬢雪鬢, 任屬形骸.
 與青谿小妹, 飛牋索賦, 嬌閨病嫂, 險韻同裁.
 癡癡煙霞誰得似, 有疏影、孤山一樹梅.
 江南夢, 想羣花未醒, 雪裏偏開.¹⁸⁾

거만한 성격으로 타고나 떠도는 신세가 되어 참담한 심정뿐이네.
 전에 집안을 꾸림에 평상에 꽃무늬 수놓거나 회문시를 짓고
 베를 짜는 일 했는데 허공속의 누대 격이네.
 바느질에 능한 사람에게 제자로 불리는 것 꺼렸는데
 전국의 규수들은 가르침을 받으러 왔었지.
 지금 더 이상 남은 실 쳐다보기 힘드니 뜻은 나태해지고 마음이 쓸쓸해지네.

18) 張璋總纂·饒宗頤初纂, 《全明詞》第五冊, 北京: 中華書局, 2004, p. 2816.

정신은 맑아 그래도 눈과 귀는 쓸 만한데
 서리 내린 귀밑머리는 멋대로 육신에 맡겼네.
 청계 여자와 함께 종이 날려 시를 찾고
 규방 과부와 병든 올케와 힘운으로 함께 시 지었지.
 산수에 빠져든 것 누구와 같은가? 외로운 산속 매화 성긴 그림자 읊던 임포
 같네.
 강남을 꿈꾸니 수많은 꽃들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눈 속에서 유독 꽃 피었던
 것 떠올리네.

상편에서는 천생이 자유롭고 얽매이기 싫어하는 성품인 것을 밝히고 남편의 관직을 따라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 신세를 한탄하였다. 바느질로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뛰어났던 고정립은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와서 배우기를 청했는데 정작 자신은 수놓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꼈다. 하편에서 고정립은 여성으로서의 처지를 동병상련할 수 있는 과부와 올케 같은 여성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외로운 노년의 삶을 달랬고 고산에서 매화를 키우던 북송의 임포처럼 자연과 산수에 정신을 의탁하고 눈 속에 피어난 매화의 고결함을 읊었다. 〈鵲橋仙〉(疏簾瀟灑)에서 “비단 실과 바느질 내던지고 수많은 책을 즐기네.”¹⁹⁾라고 읊어 가을에 규방에서 따분하게 바느질하는 것보다 차를 마시며 다양한 책을 읽으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은자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念奴嬌〉(香消)에서는 사를 짓는 것이 자신이 타고난 운명임을 천명하였다.

甲辰透鱗兒就試，有“北堂人未老，青鬢約金冠”之句，回首十年，依舊頭顱如許，可勝三歎。

香消夢覺，黯然驚、又早浮生半百。
 青鬢花封當是語，添取幾絲華髮。
 綺思紛來，回文自解，總是前生業。
 空中臺閣，醉時書破四壁。

回首辛苦三遷，鷄窓十載，千里經風雪。

19) 〈拋殘綵線與金針，消受箇、等身萬卷〉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北京：中華書局，2004，p. 2823.

倚閨高堂愁日暮，望斷鳳城雙闕。
杏雨黏衣，曲江春暖，此願知何日。
少年莫負，花明柳綻時節。²⁰⁾

갑신(甲辰)년에 아들이 과거시험 보러가는 것을 전송하였다. “북당에 계신 어머니는 아직 늙지 않았는데 젊은 나이에 금관을 썼네.”라는 시구가 있다. 10년을 뒤돌아보니 여전히 머리가 이 같으니 감탄할 만하다.

향기 사라지고 꿈에서 깨어나 암담한데 벌써 덧없는 50세라 놀라네.
검은 머리에 꽃 관을 쓴다는 이 말은 분명한데, 흰머리 몇 가닥을 보태네.
절묘한 시상 자꾸 떠올라 회문 시를 지어 위로하니 결국 인생의 업이네.
공중누각에서 취했을 때 사면 벽에 온통 글을 써놓았네

돌아보니 힘들게 세 번 이사하였고, 서재에서 10년 보냈고 천리 길에서 온갖
풍상 겪었네.
큰 집 문에 기대에 해질 무렵 수심에 젖어 한참 수도의 높은 누대 뚫어지게
바라보니
살구꽃에 내린 비가 옷을 적시고, 곡강의 봄빛은 따스한데 이내 소원 언제쯤
이루어질까?
젊어서 꽃 피고 버들 한껏 늘어진 시절을 저버리지 말게.

이 시는 고정립이 50세에 지은 것으로 자신이 선천적으로 글 쓰는 재주를 타고
나 시상(詩想)과 영감이 끊이지 않아 시를 지어 외로운 규방에서의 삶을 위로하고
술을 마시며 벽에 글을 쓰기도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지난 과거의 삶을 회고하
며 세 번이나 이사를 하여 타지에서 나그네가 되어 여기저기 떠돌며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했고 서재에서 10년간 독서하며 자신의 애달픈 마음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였다. 고정립은 〈南鄉子〉(黯然)에서는 자신의 지은 사의 특징을 표현했다.

壬子仲冬，同表妹張夫人小舟出西關，溼雲連天，欲雨不雨，淒涼景況，黯然銷魂。憶從前禮懺
華藏，曾縱纜於此，風和日暖，迥異斯時，彈指韶光抑何速耶。因記以二詞，其二和張均華〈藏
多櫻桃花〉，故落句及之。

20) 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北京：中華書局，2004，p. 2812.

消盡夜來霜，落木蕭疏雁數行。
一村橫波凝望處，瀟湘。
無限江山送夕陽。

羞說擅詞場，總是愁香怨粉章。
安得長流俱化酒，千觴。
一洗英雄兒女腸。²¹⁾

임자(壬子) 중동(仲冬) 사촌 여동생 장부인과 작은 배 타고 서관을 나섰는데 습기 낀 구름이 여러 날 계속 되어 비가 오려는 듯 했지만 내리지 않았고 처량한 경치에 슬퍼서 뉘이 나갔네. 전에 화장에 예불로 참회하고 이곳에서 마음대로 유람하는데 바람이 온화하고 햇볕이 따뜻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고 짧은 세월 또한 얼마나 빠르지 고로 두 사를 지어서 적었다. 두 번째 사는 장균화의 〈장다앵동화(藏多櫻桃花)〉를 화운한 것으로 맨 마지막 구절에 그 내용을 언급했다.

밤새 서리가 소진되고 나뭇잎 떨어져 쓸쓸하여 기러기 몇 줄로 가네
한 촌락에 가로 물결 바라보니 소상이라.
무한한 강산에서 석양을 보내네.

사를 잘 짓는 다고 말하기 부끄럽고 언제나 수심과 원망을 담은 시문이네.
어떻게 강물을 전부 천 잔의 술로 만들어
영웅 아녀자의 슬픔 마음을 씻어 낼까

이 사는 사촌여동생과 함께 여행하면서 화운한 사이다. 상편에서는 석양 기러기, 단풍을 통해 소슬한 경치를 묘사했다. 하편에서는 자신이 지은 사는 마음속의 수심과 원망을 담았다고 설명하면서 詞才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고 강물을 천 잔의 술로 만들어 여인의 슬픔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을 호방한 기세로 표현하였다. 고정립은 〈賣花聲〉(潦倒)에서 사촌 여동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承表妹錄出拙稿，并留十年前詩詞，以此奉謝。

潦倒振詞場，南國消香。

21) 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北京：中華書局，2004，p. 2823.

啼戩淚墨漫平章.
今夜不堪重檢點, 滿紙淒涼.

十載費珍藏, 一縷柔腸.
玉臺粧閣鎮端詳.
他日相憐何處是, 蘭畹同揚²²⁾.

사촌 여동생이 줄고를 기록하여 십년 전 시사를 남겨 이 사로 고마움을 표시하네.

고난으로 詞壇에 이름을 떨치니 남국의 향 사라지네.
종이와 먹에 눈물 흘리며 부질없이 문장을 다듬네.
오늘 저녁 다시 검토하는데 종이 가득 처량하네.

십년을 들여 보배롭게 간직한 한 가닥 부드러운 마음,
아름다운 누각에서 단정하고 의젓하네.
훗날 어디서 서로 연민할까? 난초 밭에서 함께 말하겠지.

고정립은 지난 10년간 자신의 詩詞를 보관해준 사촌여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상편에서는 지난날의 고난과 슬픔을 사 창작으로 승화하는 모습을 그렸다. 하편에서는 자신을 향한 사촌 여동생의 정성과 고운 마음에 감동하며 언제가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였다.

4. 다른 여성과의 교류

고정립은 다양한 여성들과 교류하며 서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詞를 주고받으며 정신적으로 위안을 삼고 노년에는 주위 여성들의 사랑과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고정립이 함께 교류한 여성으로는 王朗·嫂氏·諸姑·表姊妹·四姑·劉姑·故園諸女·女伴·程夫人·張夫人·織月閣 여인·吳夫人·玉妹·張妹·薛夫人이 있다. 고정립의 사에서 교류한 여성들을 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張璋總纂 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 北京: 中華書局, 2004, p. 2822.

교유한 여성	사 례	서 문	핵심 구절
王朗	浣溪沙(百轉)	和王夫人仲英韻	百轉嬌鶯喚獨眠.
	眼兒媚(西風)	簡王夫人仲英	可憐何事音塵絕
	青衫濕(倒傾)	題斷腸草	天公何事, 從來酷妒, 逸韻韶顏
	浣溪沙(南國)	閱斷腸草有感	記得釋愁人念我, 擘冰留與鳳皇釵.
嫂氏	憶秦娥(西窓) 1	憶嫂氏	侍兒促睡, 單衾寒怯
	憶秦娥(西窓) 2		與君嘗盡, 生離死別
	卜算子(木葉)		獨自憑, 嘗遍愁滋味.
嫂 秦氏	憶秦娥(鶻聲)	別嫂秦氏	送儂歸也花如雪.
諸姑表姊妹	踏莎行(暈掩)	予未出閣時, 每至春月, 諸姑歸甯, 大父母携表 姊妹數人流連譔笑. 自 戊寅、己卯留各各三星 入戶, 黃宜家, 不相聚首, 惟寄情於暮雲春樹耳. 夜月鏡青, 有懷難遣, 遂 賦此詞.	夢中依約聚還分, 覺來贏得愁腸逗.
四姑	歸國遙(分飛)	四姑歸歸雨阻	昨夜夢中携手, 訴愁還是舊.
	滿庭芳(白雪)	四姑話舊	從別後, 時移世換, 腸斷各風煙
劉姑	滿庭芳(素羽)	劉姑惠佛手茉莉, 賦謝.	栽蕉葉, 停毫倚石, 香韻賦難成.
故園諸女	浪淘沙(羅幕)	憶故園諸女伴	檻鸞圍鳳可憐生
	菩薩蠻1(紅冰)	病中不寐, 簡故園女伴.	轉轉憐同病
女伴	減字木蘭花(斷雲)	寄女伴	不見飛瓊和雪賤
	換魚兒		思伴侶, 鬪草西鄰女.
表妹	百字令(惱離)	秋雨懷表妹	猶記雙槳蘭舟, 催人鏡火, 携手並肩處.
	賣花聲(潦倒)	承表妹錄出拙稿, 并留十年前詩詞, 以此奉謝.	他日相憐何處是, 蘭畹同場.
程夫人	滿江紅(金粟)	贈程夫人	待和伊, 携手禮 真仙, 瑤池上.
	南 鄉 子 (黯 然) 1	壬子仲冬, 同表妹張夫	羞說舊時場.

張夫人		人小舟出西關， 溼雲連天， 欲雨不雨， 淒涼景況， 黯然銷魂。 憶從前禮懺華藏， 曾縱縱於此， 風和日暖， 迥異斯時， 彈指韶光抑何速耶。 因記以二詞， 其二和張均華「藏多櫻桃花」， 故落句及之。	總是愁香怨粉章。
	南鄉子(豔然) 2		誰與語寒泉， 瘦影低巒照可憐。
	采桑子(臙脂)	正詠秋海棠， 表妹張夫人適以此花見贈， 更成一詞。	曾伴飛瓊膩雪殘
織月閣 여인	畫堂春(國花)	黃牧丹寄織月閣	知君研北擁縹緗， 試與平章。
	水調歌頭(三月)	寄織月閣	多間阻， 難相會， 易相離。
	滿江紅(爲訪)	城南看菊， 寄織月閣。	待携將， 此景問佳人， 從頭寫。
	蝶戀花(瀟灑)	寄織月閣	伊人也與寒窓對。
	浪淘沙	和織月， 倒用原韻	何必羨儒冠， 花滿闌干。 掃眉才子是鳴鸞。
	鳳凰臺上憶吹簫 (土木)	寄織月閣	最憶蘭闌道韞， 承相念， 著意相憐。
吳夫人	重疊金(粉痕)	吳夫人贈畫梅	好句寄來看， 清芬滿畫闌。
王 妹	滿庭芳(林下)	壽王妹六十	閣中秀質， 蛾眉領袖天然。
	憶秦娥(殘冬) 1	雞肋雖存， 懶從人熱， 索居寂寂。 惟王妹時令青衣顧問， 兼承佳餉。	關心姊妹猶相憶。
	憶秦娥(殘冬) 2		深愁夢與秦娥說。
張 妹	浣溪沙(宮樣) 1	張妹惠鞵試謝， 兼呈王妹一晒。	宮樣盤雲繡鳳頭。
	浣溪沙(宮樣) 2		一帆風順載春愁。 寄來蓮瓣鳳頭尖。
薛夫人	滿江紅(蘭晚) 1	贈薛夫人	渾不似， 初相識。
	滿江紅(萬壽) 2		寒暄語， 何須說。 看他年， 麗句滿香奩。

			傳千里。
	滿江紅(夢裏) 3		羨耽書, 深癖似伊稀, 還餘我。

고정립은 〈憶秦娥〉(西窓)에서 평소 사이가 좋았던 율케를 그리워하며 내면의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하였다.

西窓月,
照人夜夜如相識, 如相識.
穿簾入幕, 故來尋覓.

空閨此際眞愁絕,
遙知尙有秦娥泣.
秦娥泣, 與君嘗盡, 生離死別.²³⁾

서쪽 창가에 뜬 달,
밤마다 서로 아는 듯이 사람을 비추고 서로 아는 듯,
주렴을 뚫고 휘장 속으로 들어와 일부러 찾아보네.

이 시각 텅 빈 규방에서 정말로 애달과 죽을 것만 같은데,
멀리서나마 아직도 진아가 흐느끼는 것을 알고 있네.
진아가 흐느끼니 입과 더불어 생이별과 사별을 다 맛보았네.

고정립은 지난날 남편과 떨어져 독수공방하는 생이별의 고통을 맛보았고 남편이 객지에서 사망한 후에 충격을 받고 과부로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혼수까지 팔아야만 했고 지독한 가난과의 싸움으로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떠올리며 규방에서 홀로 슬픔을 가눌 수가 없어 죽을 것만 같다고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고정립은 〈踏莎行〉(暈掩)에서는 과거 함께 지냈던 친척 여성들과의 교류를 자주 추억하였다.

予未出閨時, 每至春月, 諸姑歸甯, 大父母携表姊妹數人流連讌笑, 自戊寅、己卯留各各三星入

23) 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 北京: 中華書局, 2004, p. 2813.

戶，蕘(++實)宜家，不相聚首，惟寄情於暮雲春樹耳。夜月鏡青，有懷難遣，遂賦此詞。

暈掩青鏡，寒侵翠袖，
音書望斷重陽後。
昔年閨闥門新粧，
而今追憶難回首。

夜月連牀，曉窓同繡，
踏鏡挑茶頻携手。
夢中依約聚還分，
覺來贏得愁腸逗。²⁴⁾

내가 출가하기 전에 매년 봄철만 되면 여러 고모들이 친정으로 돌아왔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촌 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오랫동안 담소를 나눴다. 무인년과 기묘년부터 각자 3년간 가정을 꾸렸다. 장성한 후 가정에 충실 하느라 서로 만나지 못해 다만 저녁 구름 봄 나무에 정을 기탁할 뿐이다. 달밤에 푸른 등을 켜고 회포를 풀길이 없어서 사를 지었다.

달무리가 푸른 등을 가리고, 찬기는 푸른 소매로 스며드는데
서신을 기다렸지만 중앙절 이후로 끊어졌네.
예전에 규방에서 다뤄가며 새 화장을 했었지.
지금은 추억하자니 고개조차 돌리지 못하네.

달밤에 침대를 나란히 하고, 새벽 창가에서 함께 수를 놓고
원소절에 등불 구경하고 나물 캐러 자주 손잡고 다녔지.
꿈속에서 만났다가 다시 헤어진 것 어렴풋한데
깨어나니 도리어 수심에 애간장 타네.

고정립은 결혼 전에 출가한 자매들이 봄날에 친정으로 돌아와 담소를 나누었던 정겨운 시절을 떠올리며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만나기 어려운 현실을 못내 아쉬워했다. 상편에서 지난날 자매들과 새로운 화장법을 서로 다투며 즐거웠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였다. 하편에서 봄날 밤새 담소를 나누고 새벽에 함께 수놓고 원소절에 함께 등불 구경하고 자매들과 손잡고 나물을 캐던 정겨운 시절을 회상하였다. 〈眼兒媚〉(西風·簡王夫人仲英)에서는 친한 친구

24) 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北京：中華書局，2004，p. 2814.

인 王朗에게 편지를 썼다.

西風吹淚灑寒林, 鄉夢杳難尋.
半牀月影, 一聲歸雁, 幾處疏砧.

可憐何事音塵絕, 悵悵隔年心.
沈寥風景, 淒涼滋味, 分付孤斟.²⁵⁾

가을바람 불어 눈물을 차디찬 수풀에 뿌리니
고향 그리는 꿈 아득하여 찾기 힘드네.
달그림자 침상 반쯤 비추고 온통 돌아가는 기러기 소리뿐.
몇 군데서 가끔 다듬잇돌 소리 들리네.

무슨 일로 소식이 끊어졌는지 안타까워
근심이 해마나 마음을 가로막네.
허전하고 쓸쓸한 경치 처량한 마음,
외롭게 술 마시며 마음을 의탁하네.

이 시는 친구인 왕중영(王仲英)에게 편지를 써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하소연 하였다. 상편에서는 가을바람 속에 돌아가는 기러기의 형상을 통해 나그네의 외로움을 부각시켰다. 하편에서는 고향을 멀리 떠나 소슬한 가을 풍경을 마주하고 소식마저 끊겨 처량한 심정을 술로 달랬다. 고정립은 〈滿庭芳〉(林下·壽王妹六十)에서는 왕씨 여동생의 60세 생일을 축하하였다.

林下清神, 閣中秀質, 蛾眉領袖天然.
雲鬢宮樣, 不減似當年.
正是花中姚魏, 蒹葭倚, 玉種藍田.
真堪羨, 三株瓊樹, 文采總翩翩.

百年, 從此始, 于飛舉案, 共慶華筵.
看武陵春暖, 燕子樓前.
最喜芝蘭爭茂, 簫聲裏, 翠鳳嬋娟.

25) 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 北京: 中華書局, 2004, p. 2818.

眞堪羨, 文宗理學, 雙壽地行仙.²⁶⁾

편안하고 자적인 마음 지니고 규각에서 빼어난 자질 있는 천부적인 여성 영수로다.

꼭진 머리는 그 당시처럼 손색이 없고

꽃 중에 모란인데 갈대가 남전에 심겨진 옥 같은 훌륭한 자제를 의지하네.

세 명의 고결한 사람들 문체가 늘 휘날리니 정말 부러울만하네.

백년해로의 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 부부 금슬 좋아 남편 공경하고 함께 생신을 축하하네.

무릉의 봄이 따뜻함을 연자루 앞에서 바라보는데

가장 흐뭇한 것은 훌륭한 자제이고 통소 소리 퍼지니 아름다운 비취 봉황 춤추듯 날아오네.

문단의 영수와 이학가가 함께 지행선 되어 해로하는 것이 정말 부럽구나.

이 사의 상편에서는 왕씨 여동생의 고결한 인품과 규방 사인 중에서 시문이 뛰어난 여성 영수임을 강조하고 그녀의 단아한 머리 모양과 훌륭한 자제를 칭찬하였다. 하편에서는 왕씨 여동생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화목한 것을 부러워하며 그녀의 60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악기 연주 속에 풍악을 울리는 연회의 성대함을 묘사하고 문단의 영수인 왕씨 여동생과 이학가인 남편이 백년해로할 것을 축원하였다. 고정립은 <憶秦娥> (殘冬)에서 왕씨 여동생의 돌봄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雞肋雖存, 懶從人熱, 索居寂寂, 惟王妹時令青衣顧問, 兼承佳餉.

殘冬逼, 迴腸百結愁難說.

愁難說, 有誰來問, 凍雲寒雪.

驚心歲月空相惜, 關心姊妹猶相憶.

猶相憶, 笙歌影裏, 簞錢時節.²⁷⁾

26) 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 北京: 中華書局, 2004, p. 2832.

27) 張璋總纂·饒宗頤初纂《全明詞》第五冊, 北京: 中華書局, 2004, p. 2832.

비록 나약한 몸을 지탱하지만 사람들 따라 복적이는 것을 귀찮게 여겨 홀로 적적하게 지낸다. 다만 왕씨 여동생이 수시로 하인을 시켜서 살펴주고 귀한 음식도 보내주었다.

늦겨울 몰아닥치니 창자가 영켜서 수심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
수심을 이루 말하기 어렵네.
누가 있어 얼어붙은 구름과 추운 눈을 물어보겠는가?

놀란 마음으로 공연히 세월을 애석해하고
관심 보여주었던 자매 여전히 그리네.
그림자 속에서 생황반주에 노래하며 동전을 가지고 놀던 시절을 여전히 그리
워하네.

고정립은 외로운 노년의 삶을 돌보아 주고 음식으로 섬겨준 왕씨 여동생한테 감사를 표현하였다. 상편에서는 늦겨울의 추운 날씨에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 차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삶을 표현하였다. 하편에서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자신한테 따뜻한 사랑을 전해준 왕씨 여동생을 그리워하며 과거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였다.

5. 맺음말

명말초초에 생존했던 고정립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 시집을 갔고 남편과의 생이별로 인해 독수공방하는 나날을 보내며 남편의 무능으로 인해 자신이 바느질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 남편의 객사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고정립은 중년 이후 과부로서의 외로움과 가난한 삶을 살며 자연 속에서 은거하였다.

고정립은 전통적인 여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느껴 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해왔던 쪽진 머리와 전족 그리고

좁은 소매는 자유를 갈망하는 자신의 신체를 억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차를 마시면서 다양한 책을 접하고 글을 쓰는 것으로 규방의 단조로운 삶을 위로했다. 또한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교육의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고 과거에 응시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피해의식을 느꼈으며 유생들이 과거 급제를 통해 추구하는 부귀영화와 명리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고정립은 명나라가 만주족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한 현실을 가슴아파하면서 여성도 나라를 잃은 설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명나라의 수복을 위해 애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명대에는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다’라는 사고가 만연하여 여성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는 가정이 많았는데 고정립은 이에 맞서 여성들에게 요구되어 왔던 바느질을 내던지고 과감하게 다양한 책을 섭렵하고 자신의 문학적인 재능에 대해 자부심을 맘껏 표현하였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겪은 체험과 과부로서의 수심과 원망을 사에 토로하였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사를 창작하며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였다. 또한 당시 남성 중심의 詞壇에 대해 비판하고 뛰어난 여성의 작품을 극찬하며 사단의 지위를 여성에게 양보하라고 정면 도전하였다.

고정립은 다양한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동병상련하고 규방에 갇힌 여성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고모 · 율케 · 사촌 여동생 · 여자 친구 · 程夫人 · 張夫人 · 織月閣 여인 · 吳夫人 · 王氏 여동생 · 薛夫人 등등 다양한 신분의 여성을 포용하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여성으로서의 울분과 답답함을 풀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和韻詞를 짓기도 하고, 창작한 사를 토론하기도 하며, 결혼하기 전에 고모와 사촌언니와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고정립은 자신의 글을 10년간 보관해준 사촌 여동생한테 감사를 표시하였고 노년에는 주위 여성들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에 감동을 받았고 자신한테 말리 꽃 · 해당화 · 매화 그림 · 신발 · 음식 등으로 섬겨준 여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詞로 표현하였다.

명말청초의 고정립은 전통적인 여성의 삶에 대해 분명한 자각이 있었고 여성의 문학적인 재능을 터부시했던 명대 사회에서 당당하게 여성의 천부적인 재능과

글쓰기를 칭찬하고 남성 중심의 문단의 흐름을 바꿔보려는 대답함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詞로 교류하며 정신적인 위안을 삼았다.

〈參考文獻〉

- 鄧紅梅, 〈孤傲勁爽的顧貞立詞〉 山東師大學報, 第3期, 1996.
- 譚正璧, 《中國女性的文學生活》 金壇: 江蘇光陵古籍刻印社, 1998.
- 鄧紅梅, 《女性詞史》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0.
- 鍾慧玲, 《清代女詩人研究》 臺北: 里仁書局, 2000.
- 李娜, 《清初詞人顧貞觀研究》 蘇州大學碩士論文, 2002.
- 李聖華, 《晚明詩歌研究》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 張仲謀, 《明詞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 張宏生著, 《明清文學與性別研究》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 郭延禮, 〈明清女性文學繁榮及其主要特徵〉 《文學遺產》 第6期 2002...
- 이영자 지음 《중국여성 잔혹 풍속사 : 작은 발 한쪽에 눈물 한 동이》 서울: 에디터, 2003.
- 張璋總纂·饒宗頤初纂, 《全明詞》 第五冊 (北京: 中華書局, 2004.
- 陳東原지음 · 송정화, 최수경 옮김,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서울: 박이정, 2005.
- 趙雪沛, 〈孤憤與蒼涼交織的顧貞立詞〉 (北京大學學報 第43卷 第3期 2006.
- 루링편저 · 이은미 번역, 《중국여성: 전족 한 쌍에 눈물 두동이》 서울: 시그마북스, 2008.
- 胡文楷編·張宏生增訂, 《歷代婦女著作考》 (增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이지운, 〈명말청초 여성의 문학 활동에 대한 試論〉 《中國語文學誌》 제30집 2009.

〈中文提要〉

本論文從三個不同層次即女性生活的自覺、女性的才能與書寫、與其他女性之間的交遊著眼討論明末清初顧貞立詞的世界。先談女性生活的自覺, 顧貞立不慣於掠鬢梳鬢, 弓鞋窄袖,

對此深表不滿,以讀書、書寫來消除閨房生活的愁悶。顧貞立批判通過科舉追求富貴功名的儒生,強調女性雖然沒有機會應考科舉,但不需要羨慕他們,反而更加致力於讀書。顧貞立目睹明朝被滿族所滅,呼籲女性對國家的關懷與責任,強烈抨擊當時朝廷官吏的荒淫與奢侈。其次談女性的才能與書寫,‘無才是德’的觀念在明代社會上普遍流行,因受到此影響,以致女性教育被疏視。顧貞立對自己的文才與書寫一向很自負,將女性體驗與日常生活抒寫於詞,每當遭受痛苦艱難時,以抒寫詞作來排解千愁萬緒。她對周圍女性詞人的佳作給予了高度評價,要求霸占詞壇的男性詞人須退讓。最後談顧貞立與其他女性之間的交流,顧貞立對周圍女性有著同病相憐的感慨,在精神上安慰閨房女人苦悶單調的生活,與她交遊者,有王朗·嫂氏·諸姑·表姊妹·四姑·劉姑·故園諸女·女伴·表妹·程夫人·張夫人·織月閣女人·吳夫人·王妹·張妹·薛夫人等。顧貞立與其他女性有時創作和韻詞,討論詞作,懷念婚前娘家的生活。顧貞立感謝收藏多年顧氏文章的表妹心血,晚年她特別感謝周圍女性的關懷與照顧。總之,明末清初顧貞立對傳統女性生活有了深刻體驗,以女性的文才與書寫自負,通過其他女性之間的交流抒寫內心的憂愁與鬱憤。

關鍵詞 : 明末清初 顧貞立 詞 여성 의식 글쓰기 교유

이 논문은 2010년 11월 20일에 접수되어 2010년 12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